

중학생의 성장 발육과 기생충 보유 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

간호 학회지 1호, 1971.

신 재 신

총괄 및 결론

중학생의 성장 발육 및 기생충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량중학교 학생 2,321명을 대상으로 1970년 6월 16일 부터 6월23일까지 8일간 각종 신체계측, 대변검사 및 기타 항목들을 조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장 발육 상태

1. 직선적인 성장 발육 기간은 13~16세이다.

2. 연간 최대성장 및 발육연령과 양을 보면

신장 13~14세 6.1cm

체중 14~15세 5.1kg

흉위 13~14세 9.9cm

좌고 14~15세 3.4cm이다.

3. 신장은 서울교통계연보와 일본에 비교하여 열세하고 있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체중은 10세만 예외로 모든 연령군에서 본교생이 열세하고 있으며, 흉위는 14세에서 일본에 비해 우세하고 그 외엔 모든 연령에서 열세하다.

좌고는 10~1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서울교육통계연보 보고내용보다 열세하며, 일본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다.

4. 13~14세에서 성장 발육의 개인차가 현저하다.

5. Rohrer 충실지수를 보면 13~15세에서 발육이 가장 충실하다.

6. 신장에 비해 체중 흉위의 발육은 불충분하고 좌고의 발육은 양호하였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발육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2) 기생충 보유 현황

조사 대상자의 79.4%의 기생충 보유율을 나타냈으며 79.7%의 높은 편충 보유율을 나타내고 연령증가에 따라 기생충 보유율이 증가되고 있다.

부산 송도국민학교 아동들의 영양 상태에 관한 연구

오 영 속

결론 및 제언

조사자는 1972년부터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복음병원과 그 부속간호학교에서 지역사회보건실습지역으로 선정한 송도국민학교 학동들의 영양상태를 알고자 학동들의 피하지방량과 혈색소를 측정하여 얻은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피하지방 측정성적

(1) 견갑골하위 피하지방 측정성적

남자에 있어서는 6세에서 3.5mm, 11세에서 5.4mm, 여자에 있어서는 6세에서 4.2mm, 11세에서 7.6mm로 증가를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2) 상완부의 피하지방 측정성적

남자에 있어서는 6세에서 5.0mm, 11세에서 6.8mm, 여자에 있어서는 6세에서 6.2mm, 11세에서는 8.7mm로 증가를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3) 복부위 피하지방 측정성적

남자에 있어서는 6세에서 4.0mm, 11세에서 6.4mm 여자에 있어서는 6세에서, 4.0mm, 11세에서 8.4로 증가를 보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2) 혈색소 측정 성적

남녀 다같이 12.2 gm/dl~12.8 gm/dl의 범위를 보였고 8세를 기점으로 높은 연령층이 낮은 연령층보다 약간의 높은수치를 보였고 빈혈의 판정치인 12.0 gm/dl 보다 약간 우위였다.

제 언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촌아동들에 비하여 영양상태가 우수하다.

그리고 국민학교 아동은 일생을 통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많이 발육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적극적인 건강지도와 세심한 건강관리를 실시하므로서 건전한 일평생을 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므로써 교육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건강한 국민의 막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사려(思慮)된다.

광주 지방 여학생의 초경 연령

간호학회지 1호, 1971.

유 속 자